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로켓동아리, 전국대회 은상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로켓동아리 J.U.R.C(지도교수 최상민) 학생들이 제20회 전국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에서 로켓기술대회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학 내 로켓동아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주제에 대해 전공지식을 응용해 로켓을 설계 및 제작하는 대회로, 전국 대학생로켓연합회(NURA)에 가입된 전국 대학내 로켓동아리들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에 로켓 기술대회 부문에 참가한 J.U.R.C는 로켓 설계에 대해 시스템 공학적으로 접근했다. 작성한 설계 순서도를 바탕으로 추진, 비행 해석과 FEA(유한요소해석), CFD(전산유체역학) 등을 응용해 목표성능을 갖는 물로켓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했다. J.U.R.C 대표 민승영 학생(항공우주공학과 18학번)은 "항공우주공학도로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최대한 응용하려고 노력했고, 그 이론적 요소를 이해해 가며 로켓에 적용했다"며 "각 팀 구성원들이 맡은 분야를 잘 수행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내년에는 동아리의 활동 주제를 물로켓을 더 소형화하고, 경량화 시킬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김미나 전북대 대학원생, '도초우수발효술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미나 석사과정생(탄소융복합재료공학과·지도교수 김성룡)은 최근 창원에서 열린 2022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도초우수발효술상(포스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대학원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노 복합재료의 전기전도도 및 센싱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분자 시슬 길이 제어 전략'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폴리프로필렌 시슬구조체를 통해 점도를 조절함으로써 나노탄소의 균일한 분산을 유도, 소량의 충전제로 우수한 복합재료 전기전도도를 달성해 기계적 특성을 요구하는 습도 및 스트레인 센서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김미나 대학원생은 "학부 때부터 복합재료설계 연구실에서 관련 연구에 매진했는데, 이번 수상으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대학원 진학에 대해 고민할 때 진심된 조언을 주고,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응원해 준 지도 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백운면 흰구름작은도서관, 정은정 작가 초청 토론회

진안군 백운 흰구름 작은도서관은 '밥은 먹고 다니는 말'의 정은정 작가를 초청해 주민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 백운흰구름작은도서관은 2018년도부터 책을 읽고 느낀 점과 지역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작가와 함께 나누는 주민독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초청 작가인 정은정 작가는 '밥은 먹고 다니는 말'을 통해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요청하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을 차분히 이야기 해주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참가자들은 책을 읽고 독자와 작가 모두 외톨이가 되어가는 농촌사회의 고령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입장에 대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동력은 지역주민들의 고민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대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 강화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12일 고층 건축물·아파트·판매시설·물류창고 등 대공간 지하층의 피난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하층은 화재 발생 시 열기와 짙은 연기가 건물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인명 대피와 소방 활동을 하는 데 더욱 어렵고, 특히 아파트 등의 대규모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자동차 등 가연물에 의한 열기와 대량의 연기 발생으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장수소방서에서는 대공간 지하층의 피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배치도 부차 △주요 장소에 피난 안내도 부착 △지하층 바닥면 피난유도선·피도그램 등 근무자 대피 동선 도식화 △경기호흡기 등 확대 설치 △주거적인 지하층 피난동선 확인 훈련 등을 홍보하고 있다.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피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피난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건강한 도시 정읍을 만들겠다"

김현영 전 킷복싱협회 부회장, 정읍시체육회장 출마

전 대한킷복싱협회 김현영(56) 부회장이 오는 22일 선출하는 민선8기 정읍시체육회장 후보로 나섰다. 김 후보는 12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정읍을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능력으로 봉사하는 체육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지호소했다. 김 후보는 공약으로 "정읍시민이 누구나 체력향상을 통한 건강한 생활 영위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체육활동을 통하여 몸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대화합의 정읍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북 및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여 정읍시 체육인들의 자긍심과 위상을 도약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소액을 팔던 매장을 인수하여 일 매출을 수 백배로 성장도 시켜보려고, 여러 사람이 실패했던 유통업체를 정상적인 매장으로 살려내었듯이 효율성과 성과에 익숙한 사업가 출신으로 성과를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 내겠다."며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정읍시체육회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 대한킷복싱협회 부회장, 전라북도킷복싱협회 회장, 정읍시킷복싱협회 회장, 정읍시골프협회 전무이사, 정읍시 핸드볼협회 전무이사를 지내고 현재 원스탑쇼핑몰과 원마트 대표를 지내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북대병원, 희귀질환거점센터 개소 4주년 심포지엄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의 지난 9일 병원 본관 지하층 모의홀에서 개소 4주년을 기념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진단 및 치료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11개 권역에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설정했으며, 전북권역에서는 전북대병원 이 지정돼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개소 4주년을 맞았다. 전북대병원 본관 2층에 자리한 전북권역 희귀질환거점센터에서는 '희귀질환 진단·관리를 위한 희귀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희귀질환 관련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진료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병원 내에 전북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가 들어섬에 따라 권역 내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조기진단과 치료는 물론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졌다. 권역 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을 확대 발굴하고 희귀질환자들이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임상의료진을 위한 희귀질환 유전상담 워크숍을 부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1부 희귀질환 유전상담과 2부 희귀질환 유전상담의 실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는 12일 무주여성센터에서 (재)무주군교육발전전략학제단에 200만원,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 지원성금 100만원인 총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올 한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새우젓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2022년 무주기부의 날 사랑 나눔 성금을 기탁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에서 (재)무주군교육발전전략학제단에 기탁을 하여 우수 인재 발굴·육성 및 무주군 교육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석진숙 회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데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우리 무주의 꿈



나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는 데 장학금이 쓰였으면 한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살피는 여성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맞춤형복지서비스 건강교육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노인맞춤복지서비스 대상으로 건강교육 '신체 밸런스 되돌리기' 프로그램을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교육 '신체 밸런스 되돌리기'는 외부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 가정내에서 스트레칭과 중심잡기 운동을 통해 노인 대상자들의 신체 활력 증진과 코어강화를 이루어 전신의 밸런스를 되찾고자 한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불균형된 체형을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올바른 신체능력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지원사 90명이 1,428명의 대상자 가정으로 찾아가 1대1로 운동법을 안내하며, 대상자가 혼자서도 꾸준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진안읍, 농업인 간담회 개최

진안군 진안읍(읍장 황양희)은 12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 20여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물 육성과 이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 방안 모색 등 소문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석 농업인들은 물가 상승으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토로하며, 현재 진안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느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또한 타 시·군의 사업 중 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 건의 등 대응방향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황양희 읍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내 농업의 현실에 대해 한층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김제보건소, 1인가구 자살예방 멘토링사업 평가회

김제시 보건소(소장 송윤주)와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태민)는 12월 12일(월) 2022년 김제시 1인가구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로 15명의 김제여자고등학교 상담동아리 학생들과 관내 우울위험군 어르신 15명의 6회기 멘토링 사업 평가회를 아래와 같이 가졌다.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1인 노인가구의 소외현상 문제가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자살위험 및 우울감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멘토링 사업을 기획하였다. 8월 17일, 1회기(생명지킴이 양성교육)를 시작으로 2회기(우울예방법 카드놀이), 3회기(그때 그시절 그했지 해시태그판 만들기), 4회기(멘토멘티 커플사임 촬영), 5회기(커플사진 꾸미기, 활동소감문 작성), 6회기(멘토링 사업 평가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6회기의 여정을 담은 활동수기집 증정식과 활동 소감을 나누며 참여자 모두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회에 참석한 김모 어르신은 "순수집이 예쁜 학생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진모 학생은 "멘토와 처음 만났던 날이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이 다가와서 정말 아쉽고 잠시나마 멘토링 활동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송윤주 김제시 보건소장은 "독거노인의 자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존중 의식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자살예방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 주천면 주민축제, 발표회·전통놀이 개최

진안군 주천면 주민자치축제가 지난 10일 주천면행정복지센터 강당과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주천면 주민자치축제는 마을 어르신들께 짜장면을 대접하는 작은 행사에서 시작해 주민자치프로그램 참가자 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특히 올해는 관내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도 진행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먼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 참바댄스, 우리춤 색소폰, 아랑고고장고 등 7개 팀이 매주 모여 연습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서예교실과 실놀이(재봉 손바느질) 팀은 그간 만든 작품을 전시했다. 오후에는 결혼식을 하지 못한 조수행(88세), 정춘해(88세) 부부의 전통혼례가 열렸다. 요즘 보기 드문 전통혼례가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더욱이 '함팔기'까지 진행돼 모인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늦게이 신랑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하고, 신부는 꽃가마를 타고 등장하는 등 전통혼례의 과정을 잘 살려 진행됐다. 새 신랑이 된 조수행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렇게 늦게나마 예식을 치르니 예전으로 돌아간 듯 한 기분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설민호 비전대 학생, 건강보험사 자격시험 '수석'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설민호군이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건강보험사 자격시험에서 전국수석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시행된 건강보험사 자격시험은 전국 126개 대학에서 1,538명이 응시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졸업예정자 49명이 병원행정사와 건강보험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이 중 45명이 합격했다. 이는 전국 합격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정은성기자